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 www.klmc.church



창립 70주년 기념 성전, 동탄광림교회 입당봉헌예배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힘겨웠던 코로나 기간에 세워진 교회

지난 7월 23일(주일) 오후 4시, 경기도 화성시 목동에 위치한 동탄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입당봉헌예배가 열렸다. 이곳은 올해 11월 창립 70주년을 맞는 광림교회의 기념 성전으로 동탄 지역은 물론이고 경기남부지역 복음화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탄광림교회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480평의 규모로 코로나 기간 중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쌓은 제단이라 의미가 깊다.

250석 규모의 대예배실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입당봉헌예배는 정준수 목사의 사회와 장세근 장로의 기도, 이창우 장로의 성경봉독과 광림남교회 새하늘성가대의 특별찬양이 이어졌다.

경기연회 박장규 감독(동탄교회)은 '희망의 교회를 위하여'(살전 1:2-4)라는 말씀으로 "지난 주간에 튀르키예 지진 현장을 방문해 안

디옥광림교회의 무너진 현장에서 성만찬 예배를 진행하며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보았다. 희망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하는 요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동탄광림교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예배가 끝나고 시작된 봉헌식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동탄광림교회는 힘겹고 어려웠던

코로나 기간에 성도들이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세워진 교회라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이라고 소개했다. 광림교회 건축위원장인 안경섭 장로의 공사 보고와 관제위원장인 이안수 장로의 봉헌위임, 김정석 목사의 봉헌취지와 봉헌선언 순으로 식이 진행됐다.

이어서 김학중 목사(꿈의교회)의 축사와 하근수 목사(동탄시온교회)가 격려사를 전했다. 김학중 목사는 '광림'이라는 두 글자는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이름이며, "말씀과 기도, 찬양, 예배, 전도 등이 복음의 본질임을 기억하며, 광림이라는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하근수 목사는 "매년 놀라운 일을 해내는 광림교회를 축복하며, 앞으로도 멋지게 쓰임 받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석 담임목사는 "광림교회 담임으로 취임할 때 10개 나라에 10개 선교센

터를 짓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9개 나라에 11개 선교센터를 건축·봉헌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 봉헌하게 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광림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일에 오늘도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

한혜선 기자



2 광림의 강단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

3 광림 스토리
2023 사학미션포럼 개최

4 특집
동탄광림교회 입당봉헌예배

5 특집
호렙산 간증

6 다음세대
여름성경학교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한눈에 명확히 보는 신약성경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성경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 보다 나으니라”(잠 16:32)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데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후회로부터 옵니다. 후회하는 마음을 담고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는 또 다른 후회를 낳고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는 절망의 자리가 깊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육신이 편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참된 평강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된 평강의 삶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염려하지 않을 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위와 업적으로 평강을 누릴 것 같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참된 평강을 누릴 때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물질과 명예, 지위와 업적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6절)고 말합니다. 염려하고 집착할수록 있던 은혜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멀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32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염려하기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4-9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순종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둘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를 넘어 평강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 말씀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6절)고 기록합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요 11:41) 죽은 자 앞에서 조차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요 11:43)고 말씀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뿐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받을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강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7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9절)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두 번째,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의 수락입니다.

세 번째,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믿음을 갖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야 합니다. 보는 것은 체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배우고 알고 깨닫는 체험이 행함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앞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깨달아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체험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사학미션포럼 개최

7월 11일 정치, 교계, 학교 관계자들 모여 토론 시간 가져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2023 사학미션포럼이 7월 11일(화) 오후 2시 정치계, 교계 및 기독교 학교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엠베서더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개회사를 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거로 사학 전체를 비리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사학운영의 기본인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이 현재의 사학법이다. 앞으로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고 사학의 설립 정신에 따라 교육하고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사학법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미션포럼 순서에서는 ‘사학의 자주성과 교원 임용권 보장’, ‘학부모 교육 선택권과 교육 바우처 제도’라는 주제로 발표자와 토론자가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독교 사학이 기독교 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삼는 만큼 교육 임용권에 제동을 건 사학법의 법률적 문제에 강조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사학미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정부에 대해서는 ‘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하며’, 현재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즉각 인용을 촉구하며’, 국회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을 천명하며, 사학에 대해서는 ‘교육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을 요구하며’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참석자들도 이에 함께 호응하였다.

성명서 발표 후 모임의 총평을 위해 연단에 선 김정석 감독은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기간을 거쳐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통해 인적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가능했다. 이들 사학들은 자유와 평화라는 건학 이념 하에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의 기회를 넓혀 왔는데 현재의 사학법 하에서는 자율성과 다양성이 훼손되어 학교에서 신앙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다. 또한 교원임용권마저 제한 당해 기독교 학교에 반종교인, 비종교인이 들어오고 있으며, 기독교 학교의 존립이 위태로운 실정이다. 하루 속히 사학법이 개정되어 다시 새롭게 학교마다 창의적이며 창조적인 역사가 임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를 한 뒤 “오늘 이곳에서 토의된 모든 내용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축복 기도하면서 모든 행사 일정을 마쳤다.

이득섭 기자

장로회, 담임목사에게 감사의 마음 전해



제35회 호렙산 기도회가 40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월 14일(금) 종료되었다. 기도회 마지막 시간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념하며 떡을 떤 대면 성찬식을 거행하여 은혜를 더했다. 광림교회 장로회(회장 장세근 장로)는 호렙산 기도회 종료 직후 사회봉사관에서 시무장

로 35명이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 감사조찬예배를 드렸다.

장로회는 40일간 능력의 말씀으로 호렙산 기도회를 인도하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김정석 담임목사의 수고에 감사하며 성도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꽃다발을 전했다.

장세근 장로의 사회와 신성수 장로의 기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장로들께서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는 교회에 영적으로 큰 힘이 되었다”라며 이어진 말씀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축복의 말씀(민 6:22-27)은 축복의 기원이 되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그 생명이 빛나게 하신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다른 삶을 살게 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부족함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의 기쁨, 즉 평안과 자유롭고 충만한 삶을 주신다”며 이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장로가 되길 권면했다.

박영준 장로(뉴스레터 위원장)

2023 상반기 목회세미나

광림교회 목회를 되돌아보고 하반기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2023년 상반기 목회세미나>가 7월 14일 광림교회 나사렛 성전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목회세미나에서는 각 선교구와 교회 내 부서, 외부 기관 등 광림교회에 소속된 모든 목회자가 참여, 상반기를 점검, 하반기 목회를 구상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현재 한국 교회가 어렵지만 광림교회가 교회 회복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특별히 교회학교, 청년, 청장년 세대의 신앙 회복을 강조하셨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모두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70주년 기념 교회인 동탄광림교회의 봉헌 소식에 큰 자긍심을 갖기도 했다. 광림교회는 코로나로 모든 교회마다 회복에 집중할 때 교회 건축이라는 엄청난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었다. 한국 교회를 선도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함을 깨닫기도 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유용찬 목사(청장년부)



포토 뉴스



제35회 호렙산 기도회
40일간의 호렙산 기도회가
7월 14일 종료되었다.



기도의 벽

호렙산 기도회 동안 기도 벽에는
성도들의 기도로 가득 채워졌다.



밀레니엄 공원에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펼쳐졌다.



2023 하반기 속회공과
빛의 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담임목사 동정



- 7/11 사학미션포럼
- 7/14 제35회 호렙산 기도회
폐회 예배 및 성찬식
상반기 목회세미나
- 7/23 동탄광림교회 봉헌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지역 복음화의 청사진 담은 동탄광림교회

동탄광림교회는 경기도 화성시 목동 492-1, 동탄 제2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다. 이 곳은 2019년 4월 1일에 건축 허가를 받고,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4월 29일에 착공해 약 15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하였다. 지하에는 250석 규모의 대예배실과 방송실, 자모실이 위치해 있으며, 지상 1층은 주차장과 로비, 2층은 교역자실, 식당, 주방, 화장실, 3층은 목양실과 벤엘성전(소예배실)과 소그룹실(4개)을 배치했고, 옥상은 소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정원으로 조성되었다.



대예배실



1층 로비



목양실



자모실



벤엘성전



애찬관



옥상 정원

계단실 전면부 스테인드글라스

4층 : 삼위일체 십자가 창
광림교회의 상징인 불꽃잎이나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Burning Bush)
떨기나무를 감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매마르고 복잡한 삶 가운데 일깨워서서 치유하시는 성령님

3층 : 성부
하나님의 '하' 타이포그래피, 위로부터 오는 따뜻한 빛

2층 : 성자
예수님의 '예' 타이포그래피, 영원한 생명의 빛

1층 : 성령
성령님의 '성' 타이포그래피,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다양한 빛

작가 : 백소연 (굿아티디자인)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성전

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담아
동탄광림교회를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성전'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2023. 7. 23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경석 외 교우일동

제35회 호렙산 기도회



어찌 주님의 품을 떠나 살 수 있을까

언제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4년 전 우리 가족을 광림교회로 인도해 주신 김혜경 권사님을 통해 새가족 교육을 온전히 마치고 바로 32회 호렙산 기도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일 동안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옆집에 사시는 김 권사님은 매사에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본을 보이셨고, 우리는 그 자세를 보고 배울 수 있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광림교회에 정착한 지 2년 차부터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고3인 딸의 대학 진로를 위해 호렙산

기도회와 40일 수능 기도회에서 찬송과 성경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감사하게 딸은 수능성적이 5등급이나 향상되었고, 수시에서도 20대 1의 경쟁을 뚫고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어찌 주님의 품을 떠나 살 수 있을까요? 지금도 주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 그리고 베푸신 은혜를 잊지 못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제35회 호렙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내가 올 5월 말 건강검진을 통해 당뇨와 여성분들의 겪는 질병 초기 증상이 나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호렙산에 올라 기도하면서 6월 3주 차에 재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노후준비로 하루하루가 피곤하지만, 새벽마다 호렙산에 오를 때면 모든 피로를 씻어주시고 회사의

문제들도 순직하게 풀어가게 하십니다.

찬양 중 “모든 사람 나를 향해 뿔뿔하며 비웃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며 기뻐하리”라는 가사 내용과 같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17일 남은 호렙산 기도회를 아내와 함께 완주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넉넉하게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태권 집사(6교구)

췌장암도 치유하는 중보기도의 힘

2022년 6월 4일, 남선교회 연합회 영상 훈련으로 소금산 출렁다리를 올라가는 길에 형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너무 놀랍고 슬퍼 눈물이 앞을 가렸다. 문자 내용은 형이 췌장암으로 수술이 곤란하여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가족들에게 형님 이야기를 하고 작년 34회 호렙산 기도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형님의 췌장암 치유로 정했다. 지금까지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 받은 응답이 많았던 우리 가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했고, 우리 가족은 호렙산에 올라 형님의 치유를 위해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연장

해 주셨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형님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 조금만 우리 곁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중보기도의 힘을 얻고자 선교구 목사님, 전도사님, 25·26교구 연합 속회, 나사렛 성가대, 남성 성가단,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님과 일부 지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우리도 매일 기도에 전념하였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 극도의 진통으로 새벽 응급실에 실려 갔던 형님이 만나자고 나에게 연락이 왔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나에게 인수인계하고, 인감까지 맡기며 유언처럼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항암 치

료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막내 외삼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의 면역치료도 병행하였다. 기도 덕분에 형님의 항암 치료는 잘 진행되었고 8월 2일 중간 검사 결과 암 세포의 크기가 많이 줄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음을 느끼며 우리는 더욱 기도에 매진하였다. 9월 21일 통증이 사라져서 이제 더는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올해 3월 형님의 전화를 받았다. 이제 항암 치료를 멈추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속 받았던 면역 치료만 하게 되었다며 암 수치도 정상, 암 덩어리도 아주 작게 남았다고 한다.

아직 완치는 아니지만 1년을 넘겨 거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형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중보기도의 능력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35회 호렙산 기도회를 시작하며 그동안 내 일처럼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중보로 보답하고자 한다.

중보기도를 자청해 주셨던 임시호 권사님,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25·26교구 속회 식구들, 나사렛 성가대, 남성 성가단, 남선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남용 권사(26교구)

빈 손으로 오르는 호렙산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내 모습을 마주하며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주님 뜻대로”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 깊은 나의 내면에는 나의 생각,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정한 시간들이 가득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을. 늘 내가 원하는 그림을 다 그려놓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 그림이니 이렇게만 되게 해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것을.

바라고 구하던 기도의 제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자, 누군가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라는 감정을 가져간 것만 같이 얼굴에는 웃는 모습은 찾기가 힘들어졌고 마음속은 계속 먹구름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35회 호렙산 기도회 첫째 날, 내 안에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서 낙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2가지 결단의 마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잔뜩 손에 움켜쥐고 있던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빈손으로 나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자”
“내 뜻대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자”
그렇게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있던 내 생각

은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오르는 호렙산 여정이 시작되었고, 온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만 집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노력했습니다.

호렙에 오른 지 하루, 이틀, 일주일의 지나자 내 마음속 어둡게 자리 잡던 먹구름이 조금씩 열어졌고 어느 순간 밝은 빛이 마음속에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지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변화되었고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신 계획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며, 기쁨을 회복케 해주셨습니다.

호렙에 오르는 여정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뜻만을 구하고 그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낙심했던 모습은 이제 내려놓고, 주님 뜻만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삶이 되길 오늘도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주가 일하시네 찬양 中)

문영인 성도(청년부)

목회현장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유용상 선교사(모스크바 광림미션센터)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은 2023년 7월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터로 징집되어 끌려갔고 일부 청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상황은 모스크바 광림 선교센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징집 대상자에 속한 남자 성도들이 다른 나라로 피신하거나 전쟁터로 갔습니다. 교회에는 여자 성도들과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거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립니다. 비록 지금 전쟁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매 주 일마다 열심으로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이 모든 전쟁 상황이 해결되고 이 것처럼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호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스크바 선교센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뜨겁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함께 한 호렙산 기도회는 기도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올해 모스크바 광림 선교센터는 현지 상황에 억눌리지 않기 위해 더욱 선교에 힘썼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온 피난민들을 위해 주식으로 먹는 쌀과 마카로니를 전달했고 성도들이 기부해주신 옷을 모아 깨끗하게 정리한 후 임시보호센터로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콜, 마약 중독자들을 보호하며 말씀으로 영육이 회복되도록 힘쓰는 치료센터에 직접 찾아가 식사를 준비해 대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과 의약품들을 전달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전쟁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모스크바 광림 선교센터 위해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능히 뛰어넘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광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2023 여름성경학교

바울의 전도 여행 “변화된 삶”(갈 2:20)



팬데믹 이후 교회 안에서만 진행되었던 초등부와 소년부의 여름성경학교가 드디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열렸다. 교육1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한 변화된 삶”(갈2:20)을 공통 주제로 삼고 2023년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했다.

7월 14일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여름성경학교의 첫 포문을 연 소년부는 비전랜드에서 120여 명의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집회와 공과 공부, 기도회의 시간을 가졌고, 체육대회 및 물썰매와 물놀이 등의 활동을 하며 믿음 안에서 교제하였다. 유년부는 7월 15일과 16일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였다. 100여 명의 학생들은 성경학교에서 여러 성경 활동과 체험을 한 후 밀레니엄 광장에서 물놀이하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초등부는 7월 21일~23일까지 비전랜드에서 학생과 교사 110여 명이 성경학교에 참가했다. 학생들은 조별로 비블리오 드라마를 기

획하여 사울의 회심과 사도바울의 삶을 연기하였고, 미꾸라지 잡기와 물놀이 등의 활동을 하며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였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는 22일부터 23일까지 부서별로 여름성경학교를 개최하였다. 영아부는 부모와 함께하는 여름성경학교에서 예배를 시작으로 4가지 코스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유아부는 바울과 실라의 감옥 체험, 유라굴로 태풍 뱃놀이게임, 물놀이 시간을 가졌다. 유치부는 바울의 전도지였던 그리스 아테네를 배경으로 패션쇼와 복음의 용사를 뽑는 올림픽, 물놀이를 통해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임재철 목사(교육1부)는 “이번 성경학교에서 사도바울처럼 우리 삶의 온전한 변화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풍족함 속에 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삶에는 항상 예수님이 거하셔야 함을 깨

닫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며 변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했다. 2023년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I am a Christian!”(빌 3:8)이란 주제로 7월 28일~30일까지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열렸다. 이번 수련회에는 본당 및 지성전인 서교회와 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사들을 포함해 총 300여 명이 함께 하였다.

중등부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고등부는 건강한 공동체성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진행하였다. 특별히 김지연 대표 (한국 가족 보건협회)를 초청하여 성경적 성문화에 대해 배우는 등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이 외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위해 모든 교육2부 교사가 40일간, 하루씩 담당하며 릴레이 기도를 하였고, 7월에는 매 주 화요일마다 학부 모기도회를 통해 기도도 여름수련회를 준비하였다.

박지상 목사(교육2부)는 “무더운 여름 2박3일 간의 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고, 세상과 구별된 크리스천의 삶을 위해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팬데믹 이후 희미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 점검한 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다시금 회복하여 학교와 학원, 가정, 교우 관계 속에서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라고 했다. 박희운 기자

3선교구

작은 음악회로 모인 7교구 연합속회



지구장, 선교회장을 포함한 7교구 연합모임이 6월 28일(수) 오전 11시 신동우 장로 가정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은 그동안 체육대회를 비롯 교구 일에 앞장서 온 임원들이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진행중인 호렙산 기도회에 적극 참여하자고 결단하기 위한 자리였다. 1부는 예배와 기도회로 진행하였으며 2부 순서에서는 헐리우드 영화 음악 연주자 겸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

니스트 백진주 집사의 간증이 있는 연주회로 진행되었다.

말씀을 전한 3선교구 선영진 목사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사 43:1~3)라는 제목으로 성도가 사모하면서 두려워 할 은혜에 대하여 3가지로 정의하였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택하신 은혜이며, 둘째 어떠한 위협과 한계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시

는 은혜이며, 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를 구별하여 살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이다. 이러한 은혜를 회복하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이번 호렙산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여하자”고 강조했다.

예배에 이어 백진주 집사의 바이올린 연주회가 진행되었는데 백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으로 ‘내 주를 가까이’, ‘은혜’ 등을 연주하며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 집사는 영화 ‘타이타닉’ 장면 중에서 침몰해가는 배 위에서 악단 단원들 전체가 물 속으로 빠져들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연주가 ‘내 주를 가까이’였다고 하면서 은혜로운 연주를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박사님 권사는 “예배 후 밖에서 식사를 하면서 다들 바이올린 연주를 좀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더니 흔쾌히 이를 수락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가 연주회를 계속하였는데 참으로 은혜롭고 기억에 남는 모임이었다”고 말했다. 이득섭 기자

청년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PHOS:THE LIGHT

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
08.26(토) 2:00 PM 장충체육관

• 말씀 •



박동찬 목사
일산광림교회



홍민기 목사
라이트하우스



황덕영 목사
새중앙교회



김정석 목사
광림교회

• 찬양 •



김명선 목사
램넌트워십



이우람 목사
홀리임팩트



정용식 목사
유다지파



Annabel Soh
City Harvest Church



피아워십



디아코니아



Shake City

• 오프닝 •

with 성령한국 연합찬양팀 'The Light'

@ holyspiritkorea

www.holyspiritkorea.com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34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 26: 74-75)

예수가 체포되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가야바의 집에 숨어 들어갔다. 두 제자는 예수가 무리에 심문을 당하는 동안 집안 뜰에 앉아 모닥불을 쪼고 있었다.

모닥불 주위에는 여러 사람이 둘러서 몸을 녹이고 있었다. 베드로는 그들이 자기 얼굴을 알아챌까 봐 슬쩍 눈치를 보고 있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한 여종이 걸음을 멈추고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나요?”

그 말에 당황한 베드로가 말하였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다. 그가 문 쪽으로 가니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소. 예수를 체포할 때 당신을 보았소. 당신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는 다시 한 번 예수를 부인하며 맹세까지 하였다.

“무슨 소리오? 맹세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소.”

잠시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도 그들 가운데 하나가 틀림없다. 네 갈릴리 말투를 보면 안다. 너는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



▲ 안나스의 하인을 공격하는 베드로_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당하는 현장에서 다혈질적인 성격을 지닌 베드로가 안나스의 하인을 검으로 내리쳐 그의 귀를 자르는 장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말리고, 하인의 귀를 만져 닦게 했다.
게라드 그레고이어의 작품



▲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_ 예수의 제자라는 추궁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장면이다.
애덤 드 코스터의 작품



▲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베드로_ 예수 그리스도가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고개를 돌리고 애써 외면하는 장면이다.
하인리히 호프만의 작품

그러자 베드로는 완강하게 예수를 부인하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맹세코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아니란 말이요!”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다. 바로 어젯밤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한 예수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는 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주변은 아직 어둡고 고요했다. 베드로는 길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

광림뉴스레터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